

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펀드 등 신종형 펀드는 2016년 29조6천억원에서 2017년 45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주식형 펀드는 주가 상승 등으로 2016년 7조7천억원 감소에서 4조2천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와 MMF가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 우려와 기회비용 증가로 4분기 들어 큰 폭으로 자금이 유출되며 연중 각각 8조6천억원, 7조원 감소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 증가 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조7천억원이 증가하며 2016년 8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금전신탁은 16조원 증가하며 2016년 18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 기업자금

2017년 기업자금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과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은행대출과 직접금융 모두 2016년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며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됐다.

은행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은행의 대출 태도 완화 등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증가 규모가 2016년 30조5천억원에서 2017년 41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6년 11조2천억원 감소에서 2017년 3조5천억원 감소로 2016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회사채는 2016년 대비 순상환을 지속했으나 그 규모가 축소됐고, CP는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 주식발행은 순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2016년 대비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회사채는 금리인상 전 선발행 수요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발행 호조 등으로 연초부터 투자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상반기 중 순발행됐다. 하반기에는 만기도래 증가와 투자기관 북클로징에 따른 발행 감소, 연말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 등에 따른 발행 부진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순상환 규모는 2016년 6조7천억원에서 2017년 3조5천억원으로 축소됐다.

CP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6년 2조1천억원 순상환에서 2017년 2조3천억원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13조9천억원 증

가해 2016년 15조9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했다.

어음부도율은 2016년 0.1%에 비해 소폭 상승한 0.15%를 기록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지속 등으로 0.47%를 기록하며 2016년 0.66% 대비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가계신용

가계신용은 2017년 말 1천450조9천억원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시장 호조 등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돼 2016년보다 108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금리상승 가능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2016년 대비 증가율이 8.1%로 둔화하며 증가율 한자릿수 목표를 달성했다.

판매신용은 2016년 대비 8조1천억원 증가하며 2016년의 증가액 7조6천억원보다 소폭 올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조3천억원으로 2016년(131조9천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가계대출은 2015년보다 131조9천억원 증가(증가율 11.6%)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00조3천억원 증가(증가율 7.9%)하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는 기준주택 매매거래 감소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줄었고,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집단대출 증가 폭 또한 줄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 폭 역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말 0.26%에서 2017년 말 0.2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9%에서 0.17%로 하락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신용		(기말,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가계신용	1,203.1	1,342.5	1,359.1	1,387.9	1,419.3	1,450.9
가계대출	1,138.0	1,269.8	1,286.1	1,313.0	1,341.3	1,370.1
판매신용	65.1	72.7	73.0	74.9	78.0	80.8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업자금조달 현황 (기간 중 증감,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기업대출	은행대출	19.3	38.1	13.2	7.4	14.9	2.6
	대기업	△11.2	△3.5	2.8	△3.3	0.6	△3.7
	중소기업	30.5	41.6	10.3	10.7	14.3	6.3
직접금융	회사채순발행	△6.7	△3.5	0.2	2.7	△1.6	△4.7
	CP 순발행	△2.1	2.3	0.5	0.4	2.5	△1.0
	주식발행	15.9	13.9	1.6	4.5	3.2	4.6
어음부도율 ¹⁾	0.11	0.15	0.11	0.28	0.10	0.11	
기업대출 연체율 ²⁾	0.66	0.47	0.71	0.59	0.58	0.47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 금액 기준, 전자결제본 제외 2) 분기말 기준

국제수지

■ 개요

2017년 경상수지는 784억6천만 달러로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보다 207억8천만 달러 감소해 흑자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1%(잠정치)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상품수지는 1천198억9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9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상품 수출은 5천773억8천만 달러로 12.8%, 상품 수입은 4천574억9천만 달러로 16.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

지는 관광수지 악화로 적자가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도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 '수출입차(무역수지)'와 국제수지표상의 '상품수지'는 두 통계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하지만, 수출입차는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하고 상품수지는 '국제수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한다.

2017년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952억2천만 달러, 국제수지표상의 상품수지는 1천198억9천만 달러로 246억7천만 달러의 차이가 났다. 이는 통관 수출입 통계가 수출입 신고서 수리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반해 국제수지표상의 상품수출입 통계는 상품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은 통관(이전) 시기와 소유권이전(금액영수시점)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두 통계 간 차이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은 2010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정·공표한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 따라 국제수지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2014년 3월 반영을 완료했다. BPM6 이행으로 상품수출입 산출 시 소유권변동 여부를 명확하게 적용해,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통관 수출입액은 제외하고 소유권 변동이 있는 무통관 수출입액은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와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되며 수출입차와 상품수지 간 차이가 더 커졌다.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도 두 통계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통관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CIF 기준)하는데 상품수입은 운임과 보험료를 차감(FOB 기준)하기 때문에 특이 요인이 없는 한 상품수지는 구조적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차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17년 수출은 5천736억9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유가 상승과 글로벌 IT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및 석유

화학·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단가가 2016년 대비 8.9%로 크게 증가했고 수출 물량도 세계경제 회복 영향으로 2016년 대비 5.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7.4%, 석유제품 32.4%, 석유화학 23.6%, 선박 23.1%, 철강 19.9%, 자동차가 3.4% 증가했고 섬유 0.5%, 차 부품 9.5%, 가전 22.2%, 무선통신기기는 25.5% 감소했다.

반도체는 수출 단가와 물량이 각각 24.6%와 27.1%로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규모인 979억3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과 국내 생산설비 증설 등에 따른 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했다. 선박은 2016년 기저효과(전년 대비 -14.6%),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FPSO, 2척)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은 해외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고 자동차 부품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27.8%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연합(EU) 16.0%, 중국 14.2%, 중남미 10.5%, 일본 10.1%, 미국 3.2% 등 대부분 지역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동 지역 수출은 7.0% 감소했다.

지역별 연중 수출 흐름을 보면, EU는 선박 수출이 크게 확대된 2분기 35.9%와 3분기 24.0%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 4분기에 2.0%로 줄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3분기 미국 제조업 확장세,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19.5%까지 크게 증가한 뒤 4분기는 기저효과 등으로 2.7%로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경우 1분기 17.5%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분기 7.4%로 다소 주춤했고 3분기 15.5%, 4분기 16.3%까지 회복됐다. 아세안은 1~3분기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2016년 수출 증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수입은 4천785억 달러로 15.8% 증가했다.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22.0%와 16.2%로 크게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9.2% 늘었다. 원자재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6년 동기 대비 원유(34.6%), 가스(26.3%), 석탄(26.3%) 등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자본재는 항공기(-48.8%)와 선박(-20.5%) 등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글로벌 IT 호황에 따른 반도체 생산이 확대돼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이 크게 증가(120.8%)하면서 전체 자본재 수입 확대를 견인했다. 소비재는 옥수수, 사료 등 곡물 수입은 다소 감소(전년 대비 -2.7%)하였으나, 승용차(3.5%), 가전제품(11.5%), 귀금속(78.4%), 담배(78.3%) 등의 수입은 증가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잠정)
13대품목(증가율)	4,608.7 (4.2)	4,173.5 (-9.4)	3,854.8 (-7.6)	4,487.1 (16.4)
(비중)	(80.5)	(79.2)	(77.8)	(78.2)
선박류	398.9 (7.3)	401.1 (0.6)	342.7 (-14.6)	421.8 (23.1)
무선통신기기	295.7 (7.2)	325.9 (10.2)	296.6 (-9.0)	221.0 (-25.5)
자동차	484.0 (0.4)	452.4 (-6.5)	401.6 (-11.2)	416.9 (3.8)
일반기계	463.5 (4.8)	449.8 (-3.0)	437.6 (-2.7)	486.1 (11.1)
석유화학	482.1 (-0.3)	377.9 (-21.6)	361.6 (-4.3)	446.9 (23.6)
자동차부품	279.8 (2.3)	268.1 (-4.2)	255.7 (-4.6)	231.3 (-9.5)
컴퓨터	77.1 (-0.6)	77.5 (0.4)	84.1 (8.5)	91.8 (9.2)
가전	153.8 (-1.2)	128.3 (-16.5)	113.4 (-11.6)	88.3 (-22.2)
섬유류	161.0 (0.1)	144.9 (-10.0)	138.1 (-4.7)	137.4 (-0.5)
철강	355.4 (9.4)	302.0 (-15.0)	285.4 (-5.5)	342.1 (19.9)
반도체	626.5 (9.6)	629.2 (0.4)	622.3 (-1.1)	979.4 (57.4)
석유제품	507.8 (-3.8)	320.0 (-37.0)	264.7 (-17.3)	350.4 (32.4)
평판디스플레이	323.1 (18.0)	296.6 (-8.2)	251.1 (-15.3)	273.8 (9.0)

구분	2016				2017(잠정)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수출	4,954.3	1,260.2	1,218.5	1,323.6	5,736.9	1,320.6	1,470.4	1,510.5	1,435.4
(증가율 %)	-2.3	-6.7	-5.0	1.8	15.8	14.7	16.7	24.0	8.4
수입	4,061.9	993.0	1,024.6	1,105.9	4,784.8	1,164.3	1,178.0	1,208.5	1,234.0
(증가율 %)	-6.9	-10.1	-5.1	4.1	17.8	24.1	18.6	18.0	11.6
수지	892.3	267.2	193.9	217.7	952.2	156.3	292.5	302.0	201.4

주: 한국은행

수출입차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952억2천만 달러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늘어 2016년 대비 59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 대중국·미국·아세안 등은 무역수지 흑자, 대일본·EU 등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2017년 수출입 평가

수출단가가 크게 증가했고 수출물량도 확대돼 수출은 1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IT 호황에 따른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가영향 품목(석유제품·석유화학)이 단가 상승을 주도했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물량도 증가했다.

유가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 경기 요인이 개선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 호황기를 맞아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고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수출 증가율도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수출 순위가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기업용 메모리 및 완제품 수요가 늘었고 MCP, SSD, OLED 등 고부가 품목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 유망소비재 수출도 13.1% 증가해 수출 다변화가 진전됐다.

■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 적자는 344억7천만 달러로 167억5천만 달러 늘었다. 지재권사용료수지는 적자폭 감소, 여행·운송수지는 적자폭이 증가했고 건설수지는 흑자폭이 축소돼 전체적으로는 적자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72억6천만 달러 확대돼 171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설수지는 저유가로 인해 2015~2016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수주가 각각 -30.1%, -38.9% 감소하며 흑자폭이 77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18억5천만 달러 축소됐다.

운송수지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선단수 축소 등으로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2016년 대비 적자가 37억5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 가공서비스수지는 67억6천만 달러 적자를 내 적자폭이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지재권수지의 경우 휴대폰, 가전 등 해외생산이 확대돼 2013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은 21억2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적자폭이 7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 지급 확대 등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2017년 9억8천만 달러, 2016년 대비 34억4천만 달러 감소)하면서 2016년보다 37억3천만 달러 축소된 1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이전소득수입이 94억4천만 달러 증가(2016

년 대비 7억 달러 증가)했으나 이전소득지급이 165억2천만 달러까지 더 크게 확대(2016년 대비 20억1천만 달러)되면서 2016년보다 적자폭이 13억1천억 달러 늘어난 70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자본·금융계정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871억 달러 늘었다. 기타투자수지는 185억2천만 달러로 순자산 규모가 증가한 반면 직접투자수지는 146억2천만 달러, 증권투자수지는 578억5천만 달러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32억4천만 달러, 91억2천만 달러 줄었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2016~2017년 연속 순자산 감소(2016년: -52억3천만 달러, 2017년: -48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2016년 3천711억 달러에서 2017년 3천893억 달러로 182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6		2017				
	연간	4/4	1/4	2/4	3/4	4/4	연간
경상수지	992.4	226.8	192.0	164.5	255.7	172.4	784.6
상품수지	1,189.0	273.3	273.1	295.6	347.5	282.7	1,198.5
서비스수지	-177.4	-43.3	-86.6	-67.5	-85.0	-105.6	-344.7
본원소득수지	38.5	8.6	13.7	-48.8	19.5	16.8	1.2
이전소득수지	-57.7	-11.9	-8.2	-14.8	-26.3	-21.5	-70.8
자본·금융계정	1,025.7	249.3	197.4	130.4	308.4	234.7	871.0
직접투자수지	178.6	58.0	68.8	34.8	44.3	-1.6	146.2
증권투자수지	669.7	203.3	80.1	115.2	239.7	143.5	578.5
파생상품수지	-34.4	-11.8	-29.5	-20.7	-3.5	-28.8	-82.5
기타투자수지	135.6	-10.9	70.6	-1.0	29.5	86.1	185.2
준비자산증감	76.2	10.7	7.4	2.1	-1.5	35.6	43.6

주: 한국은행

재정

■ 재정 운용 여건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고 하반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청년 고용 여건은 악화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교역량 증가 및 유가 회복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및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한 상황도 이어졌다.

경기가 회복되며 국제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법인의 실적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크게 증가했고, 수입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초과 달성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7월 1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을 발표했다.